

광산업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계획

조영복 / 광주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전시컨벤션산업은 흔히 ‘미래형 무공해 고부가 가치산업’이라 불리고 있다.

이는 각종 국제회의나 전시회는 물론, 문화예술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선진기술과 정보교류, 무역과 상거래 증진, 관광객 유치 등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클 뿐 아니라, 국제적인 행사개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시컨벤션센터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국내·외 산업무역 및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시설로서 상업성보다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고 하겠다.



그동안 이와 같은 시설들이 수도권과 영남권에만 집중되어 있고 최근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개관되었으나 광주, 전남·북 등 호남지역에는 전무하여 대부분의 전시회 등이 수도권에서 개최로 지역경제는 활성화 되지 못하고 수도권 집중현상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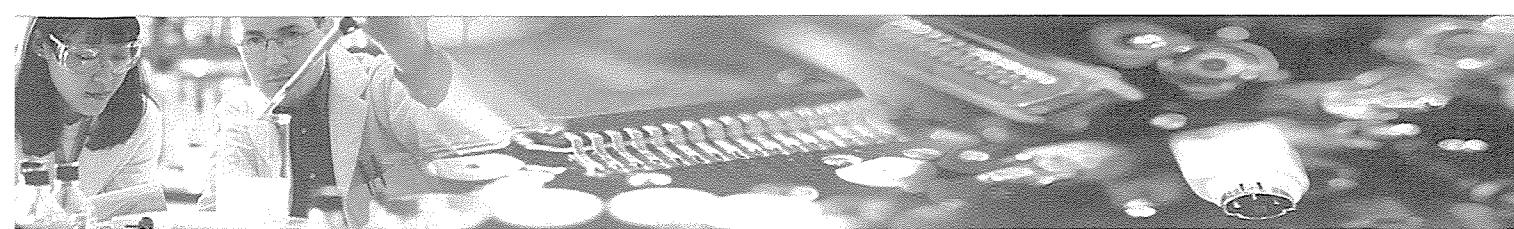
광주시는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이미 지난 1990년 이후 광주종합발전계획 등 각종 보고서를 통해 건립의 타당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광주의 주력산업인 광산업을 비롯한 첨단 지식기반산업의 성공적 육성을 위해서는 국제수준의 전시장과 회의장이 호남권의 중심도시인 광주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01년 10월에 산업자원부와 국회,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가 참여한 가운데 종합전시장 건립추진을 협의하였고, 같은 해 11월 13일 광주를 방문하신 金大中 대통령께서 광주전시컨벤션센터건립을 위한 국비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서구 상무지구에 당초 5,000평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였다.

그 이후 2002년 7월 민선3기 朴光泰 시장이 취임하여 5,000평 규모로는 국내의他の 전시장과 비교하여 시설이 미흡하고 경쟁력에서 떨어진다는 각계의 의견과 타당성검토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당초계획 보다 2배가 넘은 11,320평으로 건립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사업비도 당초 559억원에서 국비 434억원을 포함한 총 995억원로 증액하여 2005년 7월 준공목표로 본격 추진중에 있다.

〈광주전시컨벤션센터 건립개요〉

- *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59-2번지
(상무지구내)
- * 규 모 : 부지 16,123평, 건물 11,320평
- * 사업기간 : 2002 ~ 2005
- * 사업비 : 995억원(국비 434, 교부세 128, 시비 433)



광주시는 「전시컨벤션센터」를 광주의 魂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랜드마크적인 건물로 건립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물의 상징성을 공모한데 이어, 설계경기(현상설계)를 국제입찰방식으로 공모를 통해 접수된 13점의 작품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무등산과 도도하게 흐르는 광주의 정신적인 脈과 힘의 흐름”을 형상화하여 응모한 (주)정립건축종합사무소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결정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중으로 오는 8월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금년 11월중에는 공사를 착공하고, 2005년 7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계기로 ‘민선3기’ 시정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도시」와 「문화수도」로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확실히 다지고, 이를 계기로 그 동안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광주전시컨벤션센터는 빛고을 광주를 상징하는 명물로 솔라에너지 활용 등 친환경적이며 인텔리



센트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시설로써 2005년 7월까지는 공사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개관과 함께 수준높은 국제회의나 전시회가 광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국내외의 각종 행사를 유치하는데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운영비 조달이 가능하도록 수익 및 임차시설을 확대 하고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이는 물론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편의시설도 완벽하게 갖추어 명실상부한 광주의 상징적 건물이자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갈 각오이다.

